

# K팝 오디션, 아메리카 정조준...제2BTS·NCT 발굴 경쟁

SM·하이브·CJ ENM 북남미서 잇따라 론칭

핵심은 팀 아닌 시스템 진출...K팝의 현지화

K팝이 '팝의 본고장'인 아메리카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북남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잇따라 론칭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할리우드의 대형 제작사 MGM과 손잡고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할 'NCT-할리우드(Hollywood)' 론칭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MGM은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즈', '서바이버', '사크 탱크' 등을 선보인 할리우드의 대형 제작사다. SM과 MGM은 올해 안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속한 하이브는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과 힘을 합쳐 미국 시장에서 K-팝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하이브와 유니버설뮤직그룹의 주력 레이블인 '게펜 레코드(Geffen Records)'가 설립하는 합작 레이블이 주도한다.

CJ ENM은 미국 중심의 북미를 넘어 남미에서 K팝 오디션을 연다. 남미는 일찌감치 동방 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큰 인기를 누리며 K팝이 기반을 다진 곳이다.

CJ ENM은 워너미디어의 OTT 'HBO 맥스(Max)', 멕시코를 기반으로 삼은 제작사 '엔데몰 샤인 붐독(Endemol Shine Boomdog)'과 손잡고 남미 시장 대상의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한다. 한국 기업이 남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CJ ENM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엑소, 슈퍼엠,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활약으로 K팝의 위상은 남다르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팀뿐만 아니라 기획사들의 K팝 배출 시스템에 대한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이번에 하이브·CJ ENM이 잇따라 현지 오디션을 열 수 있었던 이유다.

전원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JYP의 걸그룹 '니쥬'의 성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인 멤버가 없는 K팝 그룹 형태도 가능해졌다. 니쥬는 JYP의 수장 박진영이 K팝 시스템 공식에 맞춰 발굴·제작·프로듀싱하고 있는 팀이다.

지난 2016년 론칭된 NCT는 SM의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현지화 전략이 압축된 팀이다. 사실 팀이라기보다 플랫폼에 가깝다.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Neo Culture Technology)'의 머리글자 모음인 이 팀의 주요 포인트는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고 그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까지 NCT 127, NCT U, NCT 드림, NCT 2018 등으로 분화됐다. 만들어진 지역의 특색에 따라, 그곳의 이름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 일례로 NCT 127의 127는 서울의 '위도'를 뜻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국경의 이동 제한 등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K팝 기획사들의 현지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이브가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선보이는 레이블 역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다. 하이브는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게펜 레코드와 새 K팝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협업한다. 특히 음악뿐 아니라 퍼포먼스, 패션, 뮤직비디오, 팬 커뮤니케이션 등이 결합된 K-팝의 '풀 프로덕션 시스템'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K팝 그룹의 분위기가 풍기는 팀들이 데뷔를 했다. 2017년 정식 데뷔한 '프리티머치'가 대표적으로 K팝 아이돌처럼 현란한 군무를 강조, K팝의 영향을 받은 팀으로 분류된다.

유니버설뮤직그룹 루시안 그레인지 회장 겸 CEO는 "빅히트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티스트 육성과 신기술을 수용하여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됐다"라며 "K-팝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합작법인의 출범 등 양사가 협업하게 돼 흥분된다"라고 말했다.

빌보드 더 할리우드 리포터 등도 SM과 MGM의 협업 오디션에 대해 "참가자들은 SM 캠퍼스에서 열리는 'K팝 부트 캠프'에 참여하며, SM의 핵심 시스템 'CT(Culture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이수만 프로듀서의 프로듀싱과 NCT 멤버들의 멘토링을 받아



다양한 챌린지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엠넷의 모회사인 CJ ENM 역시 남미에서 'K팝 DNA'를 가진 남성 그룹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오디션엔 K팝 가수들이 심사하고, 뿔뿔한 지원자들은 K팝의 아이돌 제작 시스템의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CJ ENM 관계자는 "K-팝과 K-콘텐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K팝 업계는 이번 SM·하이브·CJ ENM의 북남미 오디션이 K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련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탄소년단 같

은 거물급 아이돌 그룹이 다시 탄생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아티스트의 인기 지속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획사 관계자는 "K팝에 앞서 1970년대-1980년대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엔 각각 일본의 'J팝', 홍콩의 '칸토펙'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면서 "이후 스타를 추가로 배출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열풍에 그쳤는데 K팝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북남미 오디션이 그 통로가 될 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빌푸네 밥상', 대구 한식당 오픈...사전 예약 3만 돌파



핀란드 절친 4인방의 한식당 오픈 여정 그려낸 장기 프로젝트...7월 방송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빌푸네 밥상(빌푸네 밥상)'이 한식당 오픈 소식을 전했다.

오는 7월 방송을 앞둔 '빌푸네 밥상'은 한식을 사랑하는 핀란드 절친 4인방 빌푸, 빌레, 사미, 페트리가 핀란드에서 한식당을 열기 위해 한국에 한식 원정을 오는 여정을 그려낸 장기 프로젝트다.

'빌푸네 밥상'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한식당 오픈 소식을 전하며 사전 예약 신청을 진행

했다. 사전 예약은 약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총 3만2064명이 신청했다.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11일, 12일, 15일, 16일 총 4일간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소수의 손님들을 초대해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핀란드 절친 4인방은 한식당 오픈에 앞서 진정한 한식 마스터가 되기 위해 한국인 입맛 연구를 해왔다는 전언이다.

## 배철수, KBS 오디션 '새가수' 심사위원...7월 첫방송

"매의 눈"으로 가수 발굴...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할 것

가수 겸 DJ 배철수가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에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새가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탄생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노래들을 2021년 현

세대 감성으로 노래할 가수를 발굴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배철수가 '매의 눈'으로 가수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할 것

이니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새가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0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1970-90년대 노래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는 7월 첫방송 예정이다.

## 할리우드 액션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2'

다음달 23일 개봉...사무엘 잭슨·라이언 레이놀즈·셀마 헤이엑

패트리 휴즈 감독의 킬러의 보디가드 2'가 다음 달 23일 개봉한다.

미치광이 킬러 '다리오스'(사무엘 잭슨)의 경호를 맡고 나서 매일 밤 그의 악몽을 꾸는 보디가드 '마이클'(라이언 레이놀즈) 앞에 다리오스의 아내 소니아(셀마 헤이엑)가 의뢰인으로 나타나며 전개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국내 172만 관객을 동원했던 '킬러의 보디가드'(2017)의 후속으로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이 다시 한번 색다른 '브로맨스 케미(궁합)'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모건 프리먼, 안토니오 반데라스, 프랭크 그리플, 톰 호퍼 등 유명 배우들이 합류해 한층 더 풍성해졌다.

배급사 측은 "마이클과 다리오스 콤비와 추가된 의뢰인 소니아의 케미는 실 새 없이 이어지는 예측 불가한 상황과 거침없는 팍팍(액트 폭력) 입담이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CJ ENM, '케이콘택트 포 유' 다음달 19~27일 개최

세계 최대 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KCON)'이 온라인으로 확장된 '케이콘택트(KCON:TACT)'가 새로운 시즌으로 팬들을 찾아온다.

CJ ENM은 오는 6월19일부터 27일까지 '케이콘택트'의 네 번째 시즌 '케이콘택트 포 유(KCON:TACT 4 U)'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미국,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넘나들며 총

24회에 걸쳐 진행된 CJ ENM의 '케이콘'은 누적 오프라인 관객 110만명을 모은 대표 한류 페스티벌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확장, 언택트 K컬처 페스티벌인 '케이콘택트'로 그 영역을 넓혔다.

CJ ENM은 지난 3월 개최된 '케이콘택트 3'에 이어 이번 '케이콘택트'도 월드투어 콘셉트로 준비한다. 기존 '케이콘' 월드투어 개최 도시를 배경

으로 관객들이 가장 원하는 아티스트 근접 경험 콘텐츠 및 현장감 극대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그 일환으로 V DIUM 등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층 업그레이드 해 선보인다.

팬덤과의 친밀도를 자랑하는 코너들도 재편될 예정이다. 행사명처럼 팬 한 명, 한 명을 위한 축제로 팬덤의 트렌드가 반영된 콘텐츠 제작과 팬덤 밀착형 이벤트 등 차별화된 팬 서비스가 마련된다.



## 이제훈 "유품정리사, 고귀한 직업 인식 개선되길"

'무브 투 헤븐' 넷플릭스에서 14일 공개

넷플릭스 영화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이 영화가 담은 유품 정리에 대한 의미를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김세별 유품정리사와 김성호 감독, 이제훈, 탕준상 배우가 함께한 대담을 10일 공개했다.

영화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유품정리사 그루와 그의 후견인 상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이사를 도우며 그들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과정을 담는다.

공개된 영상은 작품에 영감이 된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저자인 김세별 유품정리사와 '무브 투 헤븐'의 김성호 감독, 두 주연 배우 이제훈, 탕준상과의 만남을 담았다.

유품정리사는 유족 및 의뢰인을 대신하거나 고독사일 때 고인의 유품이나 재산,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반성과 서로에 대한 관심을 촉구 하고, 유품정리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호 감독은 "단순히 청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제훈은 "유품정리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리를 잘 정리해줄 수 있다면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축복이 아니지 않나"고 말했고, 탕준상 또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본다면 (유품정리사가)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시선이나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세별 대표는 "아직도 관심이 없다. 이런 (돌아가신)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구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브 투 헤븐"이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달라도 너무 다른 유품정리사 상구(이제훈 분)와 그루(탕준상)의 만남에도 주목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루는 사회와의 소통에는 약하지만 타고난 관찰력과 깊은 시선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낸다.

감옥에서 막 출소에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던 상구는 점차 그루의 진심에 동화되고, 유품 정리가 가져오는 의미를 배워가며 그루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간다.

유품 정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상구와 그루의 삶을 두드리는 계기가 된다.

탕준상은 "그루와 상구,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의 물건을 보고도 시선과 생각이 다른 게 재미있었다"며 또 다른 관점 포인트를 짚었다.

이제훈은 "(작품을) 보시다 보면 공감하실 수밖에 없다. 나의 삶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순수건 하나 준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뉴스